산업 Issue

2026년 3월 9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데이터센터 NIMBY와 트럼프의 대책

트럼프의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예정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을 발표하며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가 서명했다. 요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직접 필요한 전력 자원을 '짓거나, 가져오거나 또는 구입해(*Building, Bringing or Buying*)'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신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 가구에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네트워크 개선 비용도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역의 유틸리티 사업자 및 관할 주정부와 신규 요금체계를 협상해야 하며 구축된 전력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실제 전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1월 중간선거 이전 데이터센터를 확충하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전력 요금 인플레로 인한 NIMBY 대응책으로 해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Electricity 2026)에서 2026-2030년 전세계 전력 수요가 연평균 3.6%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년 평균(2.8%) 대비 가속화되는 수준이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는 최근 1) 착공 건수, 2) 예상 Capex 규모, 3) 용량 등 모든 지표에서 가속화하는 흐름을 보이며 데이터센터發 전력 수요 급증 흐름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에게 번지는 전력 요금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도 통신, 전력 등 인프라와 세금 혜택 등의 이점으로 데이터센터가 가장 밀집된 곳은 북부 버지니아 지역이다. 전력 요금 상승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뿐 아니라 해당 권역 전반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 버지니아 24/25년 용량시장 입찰에서 PJM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요금이 25/26년 입찰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요금 격차가 사라진 바 있다. 버지니아주의 전력요금 인상률은 13%로 미국 평균 인상률(5.1%) 대비 2.5배 수준이다. 이외에도 소음과 용수 문제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NIMBY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들이다. 트럼프는 올해 초에도 PJM에 전기요금 급등 완화책을 요구한 바 있다.

BTM 수혜 관점 유지

이번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은 기대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발표였으나 여전히 BTM에 우호적인 정책이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하이퍼스케일향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발전기(CAT, CMI), 온사이트(BE), 데이터센터 인프라(VRT, ETN)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2026년 3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